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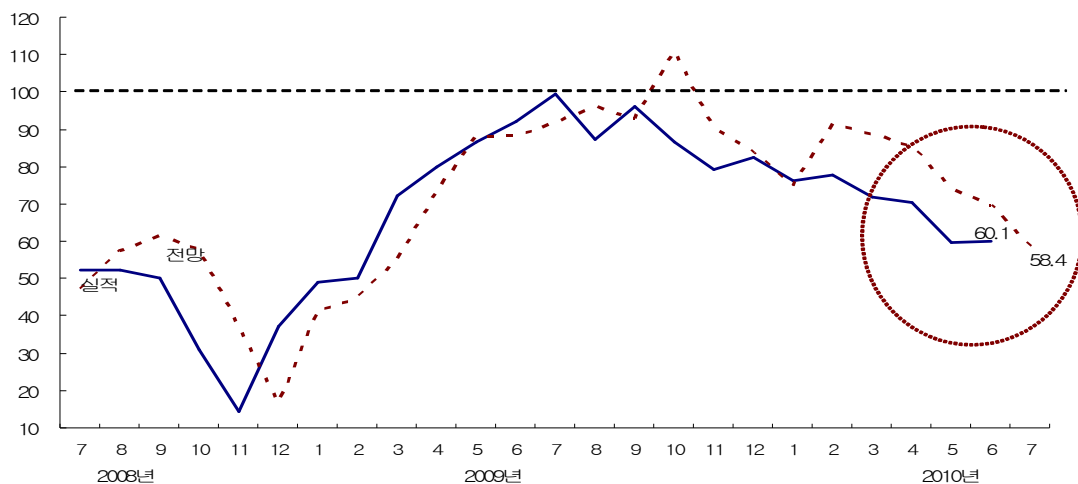
2010년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0.6p 상승한 60.1을 기록함. 이로써 지난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지수가 4개월만에 하락세를 멈춤.
 - CBSI는 작년 7월 정부 SOC예산 급증과 조기집행 영향으로 6년 7개월내 최고치인 99.3을 기록한 이후 지난 5월까지 소폭 등락을 반복하면서 10개월 동안 하락국면을 지속했음.
 - 작년 7월 이후 지난 5월까지 지수 하락 폭은 39.8p나 되었고, 특히 지난 3-5월 동안은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했음(18.1p 하락).
 - 6월 들어 지수 하락세가 멈춘 것은 5월 지수가 작년 2월 이후 15개월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이미 큰 폭으로 지수가 하락했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발표돼 최근 지수하락을 주도했던 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결과로 판단됨.
 - 그러나, 지수 상승 폭이 전월 대비 0.6p에 그쳤고, 5월을 제외하면 지수가 여전히 작년 2월 이후 최저치여서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6월 전망치 역시 58.4를 기록해 건설기업들은 이후에도 저조한 건설경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 작년 대비 재정효과가 많이 사라진 가운데 최근 민간주택의 신규 분양침체, 준공 후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에 따른 업계의 유동성 어려움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당분간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저조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소기업 지수가 소폭 상승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5.8p 하락해 침체 수준이 더 악화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5월에 전월 대비 15.7p나 하락한 64.3을 기록해 작년 2월(58.3)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으나, 6월에는 전월 대비 4.9p 상승한 69.2를 기록해 6월 전체 지수의 소폭 상승을 견인함.
 - 중소기업 지수 역시 지난 5월에는 전월 대비 17.9p나 하락한 50.0을 기록해 작년 1월(50.0) 이후 1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6월 들어서는 전월 대비 2.6p 상승한 52.6을 기록함.
 -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지난 5월 63.0을 기록해 작년 2월(40.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도 전월 대비 5.9p 하락한 57.1을 기록해 작년 2월 이후 최저치를 재정신함.
 - 대형,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업체의 체감경기만 악화된 것은 최근 상황이 어려운 주택사업 비중이 대형, 중소기업에 비해 높고, 최근 일부 중견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자금·인력·자재부문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다소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6.7, 95.0을 기록하여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건비 및 자재비 지수가 각각 87.9, 68.4를 기록하여 철강재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자재비 상황이 아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90.7, 81.0을 기록해 공사대금수급은 다소 양호하나, 건설업체들이 자금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CBSI 하락세 주춤 단, 지수는 5월 제외 여전히 작년 2월 이후 최저치

-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0.6p 상승한 60.1을 기록함.
이로써 지난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지수가 4개월만에 하락세를 멈춤.
- CBSI는 작년 7월 정부 SOC 예산 급증과 조기집행 영향으로 6년 7개월내 최고치인 99.3을 기록한 이후 지난 5월까지 소폭 등락을 반복하면서 10개월 동안 하락국면을 지속했음.
- 작년 7월 이후 지난 5월까지 지수 하락 폭은 39.8p나 되었고, 특히 지난 3~5월 동안은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했음(18.1p 하락).
- 6월 들어 지수 하락세가 멈춘 것은 5월 지수가 작년 2월 이후 15개월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이미 큰 폭으로 지수가 하락했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발표돼 최근 지수하락을 주도했던 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결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 그러나, 지수 상승 폭이 전월 대비 0.6p에 그쳤고, 5월을 제외하면 지수가 여전히 작년 2월 이후 최저치여서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소기업체 지수가 소폭 상승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5.8p 하락해 침체 수준이 더 악화됨.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구 분	2009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87.2	96.1	86.4	79.3	82.5	76.3	77.6	71.7	70.5	59.5	60.1	69.6	58.4
규모 별	대형	107.1	114.3	100.0	84.6	100.0	93.3	92.9	78.6	80.0	64.3	69.2	69.2
	중견	100.0	110.0	103.4	88.5	77.8	76.9	80.0	70.4	63.0	57.1	66.7	57.1
	중소	49.3	59.0	50.9	62.7	67.2	55.6	56.9	65.0	67.9	50.0	52.6	47.3
지역 별	서울	102.7	103.0	102.2	85.7	90.6	85.9	90.1	73.8	74.6	63.5	63.5	63.5
	지방	64.2	71.1	64.6	69.5	70.2	61.2	59.6	68.4	64.4	53.9	56.9	53.2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5월에 전월 대비 15.7p나 하락한 64.3을 기록해 작년 2월(58.3)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으나, 6월에는 전월 대비 4.9p 상승한 69.2를 기록해 6월 전체 지수의 소폭 상승을 견인함.
 - － 중소기업체 지수 역시 지난 5월에는 전월 대비 17.9p나 하락한 50.0을 기록해 작년 1월(50.0)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6월 들어서는 전월 대비 2.6p 상승한 52.6을 기록함.
 - －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지난 5월 63.0을 기록해 작년 2월(40.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도 전월 대비 5.9p 하락한 57.1을 기록해 작년 2월 이후 최저치를 재경신함.
 - － 대형, 중소기업체와 달리 중견업체의 체감경기만 악화된 것은 최근 상황이 어려운 주택사업 비중이 대형, 중소기업체에 비해 높고, 최근 일부 중견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전월과 동일한 63.5를 기록, 지방업체는 전월보다 3.0p 증가한 감소한 56.9를 기록함.
 - －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전월과 동일한 63.5를 기록함. 공사대수금과

자재 수급 상황 등이 전월보다 소폭 개선되었음. 그러나 물량 상황과 자금조달, 자재비용 상황은 전월 보다 소폭 악화되었음.

- 지방업체 지수는 통계적 반등으로 전월보다 3.0p 증가한 56.9를 기록, 두 달 연속 50선에 머물.
- 한편, 6월 전망치가 58.4를 기록해 건설기업들은 이후에도 저조한 건설경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 7월에 장마로 인한 계절적인 요인으로 다소 경기가 주춤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업체규모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체와 지방소재 건설업체가 예상하는 침체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업체 규모별로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와 중견업체는 각각 69.2, 57.1로 6월 실적치와 동일하게 전망해 건설경기가 6월과 동일하게 침체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중소기업체는 5월보다 5.3p 감소한 47.3으로 전망해 경기가 더욱 침체 할 것이라고 예상함.
 - 지역별로 서울업체는 지수는 6월과 같은 63.5로 지방업체는 6월보다 3.7p 감소한 53.2로 전망해 지방의 건설경기가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전망함.
- 작년 대비 재정효과가 많이 사라진 가운데 최근 민간주택의 신규 분양침체, 준공 후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에 따른 업계의 유동성 어려움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당분간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저조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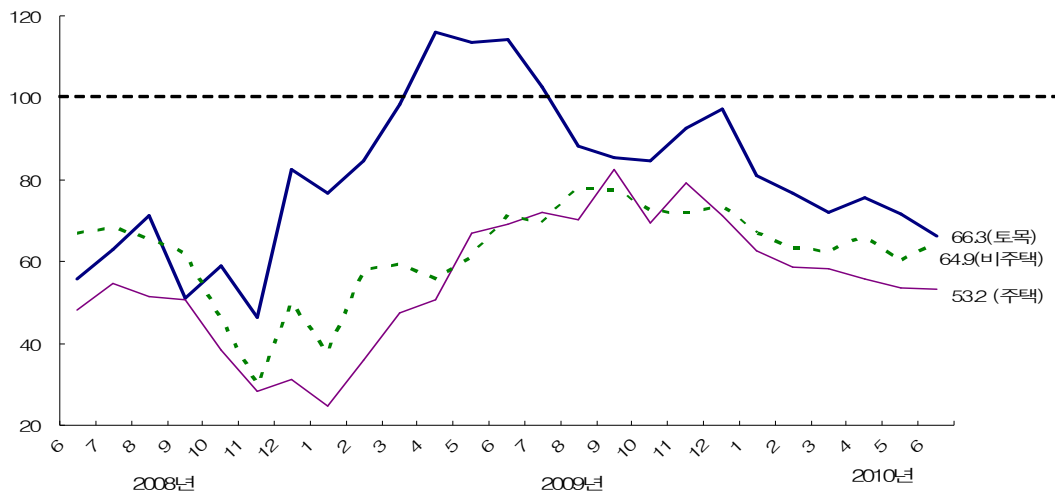
공사 물량지수 토목 물량 감소로 전월 대비 10.0p 감소한 59.3 기록

-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0.0p 감소한 59.3을 기록함. 올해 들어 전월 대비 가장 큰 하락폭과 함께 작년 1월 54.5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임. 지방선거 및 계절적인 요인으로 급락(16.5p)한 토목공사 물량이 전체 물량지수를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됨.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6.5p 감소한 66.3로 2008년 11월 46.3을 기록

한 이후 1년 6개월 사이 가장 부진한 모습임. 6월 2일 지방 선거로 인해 발주 물량이 감소하였으며 예년보다 장마가 빨리 시작된 것 또한 토목공사 물량을 감소시킨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0.5p 하락한 53.2를 기록,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재경신함. 작년 11월 79.1을 기록한 이후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건설사 구조조정과 맞물려 주택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결과로 판단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비주택 물량지수는 64.9로 전월보다 4.7 증가해 공종별로 유일하게 증가한 모습을 보임. 제조업경기가 살아남에 따라 사무실 및 창고등 관련 공사가 증가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지수가 60선에 머물러 예년에 비해 물량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대·중·소 업체 규모별로 물량지수는 중견과 중소기업체가 통계적인 반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증가(각각 1.3p, 1.8p)한 반면, 대형업체는 토목과 주택물량지수의 감소로 전월 보다 31.4p 급락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보다 31.4p 급락한 61.5를 기록함. 토목 물량지수가 69.2로 전월 대비 16.5p 감소했으며, 주택물량지수 또한 69.2로 전월 대비 2.2p 감소했음.

- 중견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3p 증가한 64.3을 기록함. 지난 5월 급격한 감소세(-18.5p)를 기록한데 따른 반등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토목과 주택 물량지수는 각각 전월 보다 2.9p, 3.9p 증가한 76.0과 57.7을 기록함. 한편,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3.8 감소한 57.7를 기록함.
-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 또한 지난 5월 11.3p 감소했던 반등효과로 전월 보다 1.8p 증가한 50.9를 기록함. 공종별로 보면 토목, 주택, 비주택 물량이 모두 전월보다 감소(각각 1.9p, 3.2p, 4.0p)했음.
- 대형과 중견업체 물량 지수가 60선(각각 61.5와 64.3을 기록)에 머물었으며 중소기업체 지수는 50.9로 중소기업체의 물량이 상황이 매우 침체한 상황임.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59.3	61.5	64.3	50.9	60.1	59.9
	전망	58.2	61.5	64.3	47.3	60.1	57.5
토목	실적	66.3	69.2	76.0	51.8	71.5	59.8
	전망	55.1	46.2	68.0	50.9	53.3	59.2
주택	실적	53.2	69.2	57.7	29.4	64.7	35.0
	전망	46.7	46.2	53.8	39.2	48.8	44.7
비주택	실적	64.9	84.6	57.7	50.0	71.0	58.0
	전망	63.5	76.9	61.5	50.0	68.5	58.1

주 : 실적은 2010년 6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7월 예측지수임.

- 서울업체와 지방업체의 물량지수는 각각 60.1과 59.9를 기록,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물량침체 상황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수 또한, 작년 2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됨.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7.5p 감소한 60.1을 기록함. 서울업체의 지수가 60선을 기록한 것은 작년 2월 65.2를 기록한 후 처음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물량침체 상황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업체의 경우 전월보다 2.2p 증가한 59.9를 기록함. 지방의 경우 이미 올해 1월과 5월 각각 51.1과 57.7을 기록해 침체된 상황을 지속하고 있음.
- 2010년 7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6월 보다 1.1p 감소한 58.2로 전망함. 여름철 비수기의 계절적 영향으로 토목공사 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제도적인 요인으로 주택공사 물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토목 물량지수는 6월 실적치보다 11.2p 감소한 55.1을 기록함. 이는 장마철로 인한 4대강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주택 물량지수도 6월 실적치보다 6.5p 감소한 46.7로 전망함. 7월부터 공공관리자제도 도입과 관련해 울들어 주택수주 물량의 절반정도를 뒷받침해왔던 재개발·재건축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비주택 물량지수는 또한 6월 실적치보다 1.4p 감소한 63.5로 전망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다소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 어려움 지속, 자금조달 상황도 어려움 지속**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다소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6.7, 95.0을 기록하여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건비 및 자재비 지수가 각각 87.9, 68.4를 기록하여 철강재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자재비 상황이 아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90.7, 81.0을 기록해 공사대금수급은 다소 양호하나, 건설업체들이 자금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90.7	107.7	78.6	84.7	93.3	87.0
		전망	85.2	100.0	78.6	75.4	87.9	81.4
	자금조달	실적	81.0	84.6	81.5	76.3	82.8	78.2
		전망	75.5	76.9	74.1	75.4	74.0	77.6
인력	수급	실적	96.7	92.3	110.7	86.0	104.6	86.8
		전망	95.5	92.3	110.7	81.8	104.6	83.7
	인건비	실적	87.9	92.3	92.9	77.2	90.4	84.4
		전망	90.7	100.0	96.4	73.2	96.2	82.8
자재	수급	실적	95.0	100.0	92.9	91.5	96.7	92.5
		전망	96.1	100.0	96.4	91.2	98.8	92.2
	비용	실적	68.4	61.5	75.0	69.0	66.0	71.9
		전망	66.6	53.8	78.6	67.9	62.6	72.4

주 : 실적은 2010년 6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7월 예측지수임.